전통작물 대신 레몬 재배…농민들 '눈물의 도전'

아열대 작목으로 변신 꾀하는 '사과 주산지' 장성 농장 가보니

폭염·이상 저온 반복 '사과' 생육여건 급격히 나빠져 전남, 비파·바나나·파파야 등 아열대 작목 전환 늘어 "지자체, 새로운 작물 '주산지'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이제는 예전 생각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수익성·판로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장성에서 레몬을 키우고 있는 정회원(62)씨의 하소연이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남의 농·어업 재 해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농민들의 고 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 특산품 재배를 포기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가 레몬을 키우는 장성은 전통적인 사과 주산지였다. 전남 사과 생산량의 67%(재배면적 74 ha)를 차지하는 장성은 과거 '사과 주산지'로 이름을 알렸지만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의 장기화와 집중호우, 이상 저온이 반복되면서 사과 생육 조건이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올 봄 이상저온으로 열매에 냉해가 발생했는데,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밤에는 습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냉해에다 열과(裂果·껍질 갈라짐) 현상까지 속출해 과수 농가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붉게 잘 익어 상품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사과가 제대로 생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농가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재배하던 자옥 등 포도 품종 역시 원래 까 맣게 익어야 하지만 기후 변화로 붉은색에 머무르 거나 제대로 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청포도(샤인 머스켓 등) 계통으로 품종을 전환한 것은 익숙한 사례다

이에 장성지역 농민들은 '레몬'이라는 대체 품종 재배에 도전하고 있다.

남해안이나 제주에서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레몬이 최근에는 장성·해남 등 내륙 지역에서도 재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있지만 여름철 고온에는 오히려 강해 기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씨는 "사과나 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하고 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남는 게 없다. 남들이 다 하는 작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라며 "지난해 첫 수확에 이어 올해 레몬 6 t 안팎을수확해 농협에 출하 중이지만 국내 레몬 소비가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숙제"라고 웃어보였다.

장성군 차원에서도 아열대작물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전남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전남은 이미 아열대작 목 재배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전국 아열대 작물 재배지 3188.3ha 중 1979ha (62.1%)가 전남에 모여있다. 특히 과수 분야에서 무화과(742ha), 석류(89.7ha), 비파(75.6ha) 등



지난 14일 장성군 삼서면의 한 레몬 농가에서 정회원씨가 레몬을 수확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전국의 80%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전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도 기후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레 몬 재배' 등이 새로운 활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 협, 지자체, 정부가 함께 나서 판로를 만들고 2차 가공 식품에 대한 연구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 해다

농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온라인 직거래, 잼·청 으로의 가공, 카페·음료 프랜차이즈 납품을 추진하 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산 아열대 과일은 수입산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상품성을 높이고 학교 급식이나 로컬푸드, 농협 하나로마트 등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게 농가 입장이다.

손정환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기후 변화로 전통 작물만으로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농가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신작물은 초기 판로 확보와 소비자 인식 전환이 동

반되지 않으면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지역이 특정 작물의 주산지로 자리잡으려면 생산과 판매가 안정되고 재배기술이 축적되는 등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장성의 사과 주산지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결과"라며 "농협이나 지자체 등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선 검측 누락 '빈번'

4년간 '월 1회' 누락 46차례 등

국가철도공단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고속선 검 측에서 광주송정역과 오송역을 오가는 호남고속선 이 최근 4년간 11회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고속선은 검측 누락 이후 실시하는 '대체 검 측'도 3번이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KTX 등 고속선의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총 46번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내부 규정(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은 고속철도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단은 노후화를 이유로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2025년 16회 등 계획된 점검을 수행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은 계획된 11회의 점검이 누락됐다.

공단은 점검 누락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 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으나, 이 중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 정)에 대해서는 2024년 11·12월, 2025년 6월 총 3번 등 대체검측을 누락했다.

대체검측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발전 엔진 고장, 3월은 주행 엔진 고장이 발생했고 2025년 6~7월에는 종합검측차 공기 제동라인 고장으로 두 달간 점검 스케줄을 수행하지 못했다.

공단이 보유한 검측차는 2004년 4월 도입했는데, 2022년 2차례 주행 엔진 냉각라인 고장, 2023년 제도 검측 시스템 고장, 주행 엔진 콤프레셔 고장, 상부 냉각 호스 고장, 2024년 냉각라인 과열, 2025년 공기 제동라인 고장 등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월 1회 검측 규정은 반 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17일까지 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17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은 광주·전남 지역 곳곳 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고, 17일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전남 지역은 15일 폭염주의보(고흥·보성·여수· 광양·순천)가 유지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 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 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6~28도)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를 보이고, 17일 낮 최고기온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______/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방자치 30년…해외출장 보고회 연다

광주 북구의회…일부 의원들 부정 환급 의혹 수사 속 눈길

광주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회를 연다. 일부 의원들이 출장비 부정 사용 문제로 경찰 내사 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구의회는 16일 오후 2시 북구행복어울림 센터 2층 어울림강당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 무국외출장(일본 후쿠오카, 오이타, 기타큐 슈) 결과보고회를 연다.

북구의회 의원 7명과 직원 2명 등 9명은 지 난 7월 14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후쿠오카·오 이타·기타큐슈 등을 찾아 일본의 사회복지·문 화체육·지역경제 관련 분야 우수 사례를 탐방 한 바 있다.

이들은 출장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주민 들에게 직접 알리고 정책에 적용 가능한 사항 등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북구의회 안팎에서는 12명 의원들이 최근

일본 도쿄로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정 환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인 것과 비교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후쿠오카 등을 다녀온 의원들 모임의 최기영 단장은 "기초의원들의 국외공무수행이 외유성 으로 비춰지며 잡음이 지속됐기 때문에 출장 가기 전부터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광산구의회는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